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원안가결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강영 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김성경, 반선호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유장근 의원과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구정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되었고 박재범 의원은 '부산 남구 감만8부두 생활학무기 탄저균 실험시설 도입 반대'의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총무위원회(위원장 윤명희)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윤명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상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처리됐다. 이날 유장근 의원은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기점지와 용호만 매



남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첫날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립지 개발과 관련한 내용 등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지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서를 필한 후 감사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함.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기준 설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능률 증진

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동작업장 운영,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행복 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ℓ 당 4원→8원)됨에 따라 인상분을 사업장종량제분투 관매가격에 반영·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그린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관련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그린주차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그린주차사업 보조금(시비 및 구비)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 청취의 건(결안사실)(반대의견 제시)

—제3차 전국무역항(부산항: 접안시설, 외곽시설, 항만시설용부지 추가 등)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지방 의회 의견 포함사항 관련 의견을 제출함.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 청취의 건(결안사실)(반대의견 제시)

—제3차 전국무역항(부산항: 접안시설, 외곽시설, 항만시설용부지 추가 등)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지방 의회 의견 포함사항 관련 의견을 제출함.



운영위원회 안전심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지난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 심사를 했다.



총무위원회 안전심사

총무위원회(위원장 윤명희)는 지난 13일 총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안전심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는 지난 13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예비비 지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명희)는 지난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어린이 의회교실에 참여한 석포초등, 대연초등, 분포초등 학생들(왼쪽부터).



2016년 상반기 어린이 의회교실 성황… 석포·대연·분포초 149명 참여

남구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3회에 걸쳐 관내 석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연초등학교, 분포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4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상반기 남구의회 어린이 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지역구 의원인 정희영 의원(석포초등학교), 박미순 의원(분포초등학교)과 이강영 의원

(대연초등학교)이 일일 강사로 나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강의를 하며 참여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희영 의원이 특별히 준비한 '신바람 나게 공부하는 법' 강의는 바른말 하기의 중요성과 좋은 사귀, 신바람 나게 공부하는 방법 등 참여 학생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좋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참여도를 높였다. 이어 모의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의 필수교육 과정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현장체험학습 인증제 및 통합 웹사이트 구축'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질의·의해 토론회하는 과정을 통해 조례

안 제정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 전원이 의정실에서 의사봉을 쳐보고 기념촬영 및 기념품도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남구의회가 하는 일을 모두 보여 주기에는 80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의회교실이 참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향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미순 의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

이강영 의원 범죄피해자 긴급 지원

남구의원 조례안 발의

남구의회 박미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동작업장 운영,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 했다.

이강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생계가 어려운 범죄 피해자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접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



박미순 의원



이강영 의원

며, '지원 내용·방법 및 기준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6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희 의원 선임



윤명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 위원장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까지 남구의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예·결산 심사를 책임지며 구 전반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계 된다. 윤 위원장은 "위원장이로서 구에서 편성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모성·전시성 예산을 줄여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



박재범 의원

(용역, 감만1·2, 우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발언은 생활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 이른바 '슈퍼더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미 국방부의 생활학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에 대한 보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미국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야외실험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1일자 미군사전문지 '시그널'에 미국 생화학분야 융합첨단국의 캄캄마러 소장은 올해 3분기 안에 우руг구 감만동 소재 8부두에 생활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이 처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입 장소를 감만8부두로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건조 상태로는 10년 이상 생존하는데 탄저

감만8부두 탄저균 실험시설 절대 안돼

균을 섭취하면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폐에 울혈이 발생,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탄저균 포자는 땅속에 묻더라도 몇 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후 발생시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나다. 탄저균 100kg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군이 도입하려는 탄저균 실험시설은 안보나 외교, 동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만동, 남구, 부산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삶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탄저균 실험시설이 우руг구 감만동 8부두로 도입되는 참사를 막는데 남구가 최일선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지휘령정인 SOFA를 근거로 들면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남의 일인양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홍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우선은 탄저균 실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의 주도보다는 각급 단체가 주도하고 연대해서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탄저균 실험시설 도입 결사반대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수년간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다 이제와 갑자기 오산 대신 남구 감만동 8부두로 변경한 사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군이 경기도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산 시민을 앞잡아 보고 부산에 설치하면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착오 판단 한 것은 아닐까요.

다행히 부산시민단체가 발 벗고 먼저 나섰습니다. 주한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시설 부산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가 지난 8월 프로젝트 철화를 목표로 반대운동을 시작하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민단체와 우руг구가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근대 무관심과 무대응이 낳은 안전사고들을 안전불감증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겪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용호매립지 천문학적 이익, 주민에게 돌려줘야



유장근 의원

(용호1동)

유장근 의원은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해상케이블카 건립과 용호만매립지 주상복합 공사, 초대형 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등과 관련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유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사업 제안 회사의 대표는 용호만 매립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건설사의 자회사 대표이며, 용호만 매립시 행정 부서장을 맡았는데 더부칸벤치센터, 용호만 매립지, 케이블카 사업들이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주민의 우려는 일련의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보자고 발언을 열었다.

용호만 매립지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해 유 의원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도가 바뀌어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 요지"라고 지적했다. 당시 용호만매립지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이었는데 주민들의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유 의원은 "매립지 개발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감사원은 부산시에 부당이익 환수금으로 239억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해 120억원으로 깎여 119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유찬 안전도시국장은 "당시 남구는 중재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달라"며 "지난 5월24일 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개발이익 환수 및 유지관리 주체는 남구청이고 용호만 립공원 건립 대상 토지 소유권을 구청이 확보해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69층 주상복합건물 공사에 있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철저한 지도감독과 초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파달락권, 교통량 등 여러 발생 가능한 공적 문제에 대해 관청에서 중재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주상복합건물에 들어

설 대규모 점포(더블 스캐어) 개설과 관련해 "대형점포 입점은 상권 활성화 등으로 반길 일이니 재래시장·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반경 1km 이내 전통신장 보상 규정을 물었다. 이에 김창희 주민생활국장은 "법규상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해 전통신장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구청장자의 견해를 물었고 이종철 구청장은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제안서가 부산시에 접수되었고 환경과파나 관광 활성화나 잔반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남구는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한 뒤 향후 방향이 정해지면 남구와 주민에게 유리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시내빈상장 건립과 관광자원 개발을 주도할 남구청 산하 관광체육공단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용호만 일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삶과 용호만의 해양경관 가치가 건설사의 분양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며 "백성은 배고픔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지 않음에 분노한다"는 말로 구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6월 29일 '남구 문화가 있는 수요일' 무료 공연

■6월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PART1

○시간·장소 : 11:20~12:00 (남구청 1층 대강당)
○연주(통기타, 하모니카, 가아름, 오카리나), 공연(대중가수, 한국무용, 태극권)

■제9회 남구문화 콘서트

○시간·장소 : 14:00~16:00 (남구청 1층 대강당)
○연주(통기타, 하모니카, 가아름, 오카리나), 공연(대중가수, 한국무용, 태극권)

■6월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PART2

○시간·장소 : 16:30~18:00 (평화공원 중앙수리나)
○통기타합주, 오카리나 앙상블, 대중가수 공연